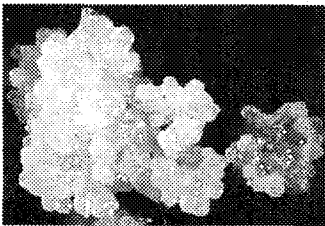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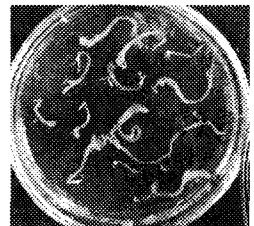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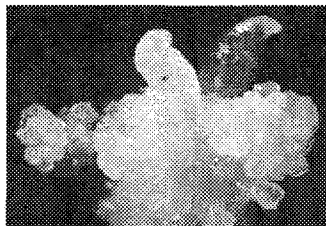


# 체세포복제에 의한 백합나무 증식기술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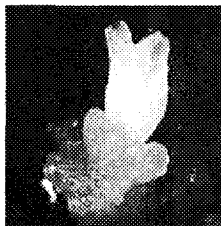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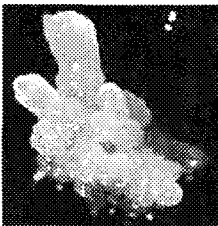
- ◆ 산림청 임업연구원(원장 서승진)은 조직배양 기법을 이용하여 유용경제수종으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백합나무의 미숙종자로부터 체세포배 유도에 의한 증식기술을 개발하였다.
- ◆ 지금까지 백합나무 조림은 주로 실생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충실종자율이 10-30%에 불과하며 발아율도 낮기 때문에 묘목의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◆ 또한 백합나무는 산지간, 개체간에 유전적인 변이가 심한 수종이므로 우수한 산지의 우량개체를 선발하여 보급해야만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.
- ◆ 따라서 어머니나무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성증식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.
- ◆ 무성증식 방법에는 접목, 삽목, 조직배양 등의 방법이 있으나, 그중 조직배양, 특히 체세포 배 유도에 의한 증식방법이 묘목의 대량생산 하는데 가장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.
- ◆ 임업연구원에서는 최근 백합나무의 미숙종자로부터 배발생조직을 유도하고, 여기에서 체세포배 유도, 발아 단계를 거쳐 포트묘 까지 육성한 바 있으며, 앞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면 조직배양묘를 이용한 대량조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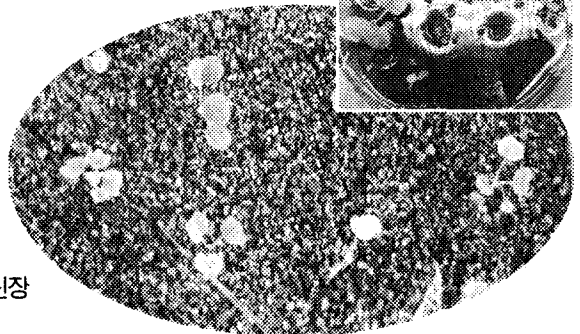
▲ 미숙종자로부터 배발생조직 유도



▶ 체세포배 발아 및 줄기신장



▲ 배발생조직으로부터 체세포배 유도 및 발달



▶ 체세포배 발아 및 줄기신장